



김민석 국무총리, 광주 침수 피해현장 점검

- 피해 복구 및 수습, 생계·영농 재개까지 정부가 전방위 지원
- 수해 대응 과정에서 미흡한 점 있다면 철저히 점검·보완

-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(일) 오전,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, 도로·주택·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복구를 방문했다.
 -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,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.
 - 이 자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, 문인 광주광역시 복구청장, 더불어 민주당 전진숙, 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.
- 김 총리는 먼저, 광주광역시 복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하여 문인 복구청장으로부터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난 뒤, 상가 및 주택침수 현장 곳곳을 확인했다.
 - 김 총리는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“큰 상실과 아픔 속에서도 곳곳이 견디고 계신 피해 주민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”고 밝힌 뒤,
 - “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 - “이번 수해의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,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- 이어, 광주광역시 복구 용강동 하신마을로 이동한 뒤 문인 복구청장으로부터 침수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, 농경지 침수(딸기 육묘장) 및 주택침수 현장을 둘러봤다.

- 김 총리는 “한 해 농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 가꾼 자식 같은 작물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땀과 희망이 깃든 시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”며
- “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”고 밝혔다.
-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주 농민은 김 총리에게 “재해보험료가 같은 면적인데도 시(130만원)와 군(30만원)이 차이가 많다며 한 해 농사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며 개선을 해달라”고 요청했다.
- 이에 김 총리는 “그 문제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겠다”고 화답했다.
- 아울러, “정부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,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-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하신마을 주택침수 현장을 찾아 “여러분께서 힘들고 지치시겠지만,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란다”며,
- “정부가 소중한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팀장	지사향	(044-200-2365)
	안전·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김민규	(044-200-2348)